

48. 제사상식

이름	부명	조부	증조부	세	파	직계보기	묘지도	구족보보기	신족보보기	상세보기	가로계보도	교정보보기	4대조상	직계행적
자녀	文瓘 문경	伯全 백전	璠 연	6										
金自光 김자광	尙誥 상하	翊 익	長源 장원	19	직장공파									
順子 순자	興耨 흥서	然卓 연탁	文紘 문현	26	직장공파									
明子 명자	宗耨 종서	然泰 연태	義紘 희현	26	직장공파									
子文 자문	德耨 덕서	然友 연우	浩紘 호현	26	직장공파									
玉子 옥자	俊耨 준서	然雨 연우	鶴紘 학현	26	직장공파									
貞子 정자	俊耨 준서	然雨 연우	鶴紘 학현	26	직장공파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검색에서 '참고자료' 클릭

자료실

- 명가의 가훈
- 24절기
- 625삼천국
- 부모
- 촌수
- 띠이야기
- 간지
- 자방쓰는 방법
- 관청상식
- 관직상식
- 공신
- 고사성어
- 지명별성씨
- 호칭 및 관계
- 본관별 인구
- 성씨별 인구
- 속담이야기
- **제사상식**
- 역대왕조표
- 역사이야기
- 결혼기념일
- 나이와 호칭
- 호칭 및 관계
- 오행상식
- 연호

[관직해설](#)

[관청해설](#)

[역사위인](#)

[구지명해설](#)

[연대표해설](#)

● 명가의 가훈

가훈(家訓)이란

가훈이란 한 집안 안에서 지켜지는 법도를 말한다.가훈과 같은 말로 가계(家戒), 가규(家規), 가약(家約), 가법(家法)이란 말도 있다.

문중에서는 문규(門規, 혹은 宗規)가 있어서 종산(宗山), 제사담(祭祀齋)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훈은 가정의 어른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안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재산을 지키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조상을 빛낼 수 있는 행동의 강령을 규정하되 이심전심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글씨로 써붙여 이렇게 지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훈이 무르익어 가풍이 되면 전통있는 윤리규범되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의 핵은 이 가풍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건전하면 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나 윤리질서도 건전할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가훈(家訓)의 유래

가훈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오랜 것은 중국 복제 안지추의 안씨가훈부터이다.

당시 5호 16국의 소용들이 속에 살고 있던 그는 자기 집의 전통을 지키고 입신, 치가의 법을 가훈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 내용은 실로 다양해서 서치, 교자, 형제, 후취, 치가, 문장, 명실, 섭무, 성사, 지족, 제병, 양생, 귀심, 서중, 음사, 잡예, 증제 등의 20편으로 나뉘어 구체적이고 주밀하다.

송나라에 오면 주자(朱子)와 그 문인의 손에 이루어진 "소학(小學)"이 있다. 소학은 성현의 가르침과 가정윤리, 도덕, 군자의 일행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그대로 실행하면 성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일반에게는 너무나 높은 규범이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가훈을 모아 놓는다 해도 이 "소학"이 포용하고 있는 덕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훈(家訓)과 시대상황

환경과 시대에 따라 가훈은 변해야 하고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

신라 김유신의 부인은 당나라와 싸워서 패배하고 돌아온 자기 아들 원술을 만나주지 않았다.

임전무퇴(臨戰無退)의 화랑정신(花郎精神)을 가훈으로 삼은 김유신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에 무사도(武士道)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였다.

그런가 하면 고려 이후에는 과거를 통하여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선민으로 등장한 선비 집안에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성현의 가르침을 자제들에게 심어 주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효의 대의로 삼았던 때라서 사대부(士大夫)사회 1,000년의 전통속에 많은 가훈이 생성되었다.

이것들은 대개 문집에 기아, 기녀 중 편지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우암 송시열의 <계서녀>는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간 딸을 위하여 쓴 것이다.

참고자료에서 '제사상식' 클릭

전통(傳統) 제례(祭禮) 순서(順序)

1. 제사를 지내는 마음가짐(우암 송시열선생의 말씀)

제사는 정성으로 정결하며 조심함이 으뜸이니, 제수(祭需)를 장만할 때에 걱정을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경박하게 웃지 말고, 말과 얼굴에 근심을 나타내지 말고, 없는 것을 구차하게 남에게 얻어서 하지 말며, 제물(祭物)에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되며, 제수 음식을 먼저 먹지 말고, 어린아이가 보채도 주지 말고, 많이 장만하면 자연히 깨끗하지 못하니 쓸 만큼만 장만하고, 다음번 제사에 부족할 것 같으면 일년 동안 쓸 제수 들어갈 것을 생각하여, 다음번 제사에 제수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 많고 적음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라.

정성스럽게 머리 빗고 목욕하되 한 겨울이라도 반드시 해야하고, 기제사(忌祭)에 색깔 옷 입지 말고, 손톱 발톱을 깎고 정결하게 하면 귀신이 와서 잡수시고, 자손에게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이 있는 것이다.

남의 제사에 참례하거나 아버지의 벼에게 드릴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에도, 모두 내 집의 제사같이 여기고 남에게 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해롭고, 복이 떨어지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여야 할 것이니라

2. 제사의 의의

기일(忌日)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슬퍼하는 날이다. 자식된 자는 평생 이 날을 슬퍼하며 지낸다.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부모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 보고, 돌아가신 날을 슬퍼하며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기(忌)란 꺼린다는 뜻이니 무슨 일이든 꺼리어 하지 않으며, 또한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란 꺼리고 피한다는 뜻이니, 오직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슬퍼하며 극진한 사모의 정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제사의 대상

기일(忌日)을 당하는 신위만 제사를 받는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고비각설(考妣各設)이라하여 내외분이라도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은 상을 따로 차린다. 그러나 정자(程子)의 제례에 따르면 두분을 같이 모셔 배향(配享)한다. 주자는 원칙(原則)을 말한 것이요, 정자는 인정(人情)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자의 제례를 따라 두 분을 같이 합사(合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대조(四大祖)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지내는 것이 보통이나, 오대봉사(五代奉祀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현조부모)라 하여 오대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